

● Iontophoresis가 NaF를 이용한 치아과민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최주용 · 손성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주과 전공

치아과민증의 치료에 쓰이는 NaF의 도표에 Iontophoresis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 가를 보고자 하는 연구로 30세에서 55세까지의 환자 21명을 선택하여 A, B, C 3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A군은 Ionator를 이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실험 비교함.

B군은 Desensitron을 이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실험 비교함.

C군은 Ionator의 효과와 Desensitron의 효과를 비교함.

NaF의 도표는 1주에 21회씩 6주간 실시하였고 pain score 측정은 도포전, 도포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2달, 3달에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군에서 보면, 실험군에선 전 실험기간을 통하여 좋은 효과를 보였고 대조군에선 실험개시 4주후부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2. B군에서 보면, 실험군에서 보면 실험개시 2주후에 어느정도 효과를 보였고 3주후부터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대조군에선 실험개시 6주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군에서 실험 개시 3주후에 일시적 감소효과를 보였다.
3. C군에서 보면, Ionator가 Desensitron에 비해 전반적으로 효과가 좀 나은 듯 하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 치은에 발생한 Plasmacytoma에 대한 증례보고

김미영 · 채종규 · 조규성 · 김종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주과 전공

결 론

형질세포종은

1.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과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2. 일반적으로 골조직에 침범하며, 연조직에 비골수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후 조직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치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예후는 다발성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거의 전부 사망하는 fatal disease로 알려져 있다.
3. 본 예에서는 50세의 여자 환자로서 치은에 종양이 침범된 것은 1년 미만으로 추정되며(환자의 지눌에 의하면) 폐염과 결핵을 경험한 적이 있다.
4. 본 예에서도 예후는 불량하여 환자는 사망하였다.